

1월 전북 수출액 7억4874만불

전년보다 34.4% ↑... 무역수지 적자 속 전북은 흑자 확대 유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준우)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2년 1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4.4%가 증가한 7억4874만 달러, 수입은 14.7%가 증가한 5억2996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무역수지는 2억1877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월 수출 금액은 2015년 3월 이후 약 7년만에 가장 높은 월별 수출실적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입물가 급등 등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북지역은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정밀화학원료, 합성수지, 동제품 농기계가 주요 수출 품목으로 기록됐다.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한 정밀화학원료(\$7,470만, 59.1%)는 최근 동물사료용 원료와 폴리실리콘 등의 반도체 화학원료의 수출 증가로 중국, 베트남 등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이어서 합성수지(\$6,944만, 51.4%), 동제품(\$6,898만, 48.2%)의 수출도 증가세로 나타났다.

수출 4위 품목인 농기계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55.9%가 증가한 5,370만 불을 기록했는데 미국 수출이 44.5%가 증가하며 4,608만 불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단일 품목의 특정 국가

수출 실적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나라 농기계 제품의 미국 수요가 꾸준히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는 미국(\$1억5,580만, 67.6%), 중국(\$1억3,317만, 2.6%), 일본(\$4,518만, 29.5%), 베트남(\$4,500만, 38.4%) 등으로 수출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대미 수출 품목은 농기계, 건설광산기계, 알루미늄이 주요 수출품이었으며 중국으로는 동제품, 합성수지, 정밀화학원료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싱가포르(\$2,800만, 726.1%), 터키(\$2,400만, 377.5%)로의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싱가포르의 석유제품(\$2,555만, 신규) 중 윤활유 제품의 대규모 수출 건으로 일시적인 증가세로 보이고, 터키의 경우 냉난방기(\$1,668만, 신규)의 신규 수출 거래로 수출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박준우 본부장은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됐음에도 1월 전북지역은 수출 증가세가 커지며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 중인 점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등의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 수출기업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균형있게 강화”

조정석 신임 금감원 전북지원장



신임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에 조정석 前 금융감독원 독일담당관 겸 사모소장이 지난 26일자로 부임했다.

신임 조 지원장은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3년 보험감독원에 입사해 금융감독원 통합 이후 보험감리실 팀장, 보험영업감사실 부국장 등을 거쳐 지난 2년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모소장 등을 역임한 보험감독·감사 및 글로벌 금융 분야의 전문가다.

조 지원장은 “앞으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은 금융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취약계층 맞춤형·지역 밀착형 금융교육을 중점 추진하는 등 사전·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를 균형 있게 강화하겠다”며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전북경찰청, 도내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서민·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내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 소통을 강화해 관내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지원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첫째 줄 좌측 네 번째)과 론 킵 하원의원(첫째 줄 우측 네 번째). (사진=aT공사 제공)

美 뉴욕주 ‘김치의 날’ 제정... 미국 내 3번째

aT, 4~5월 공표식 맞춰 현지 홍보행사 추진키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이하 aT)는 미국 동부 뉴욕주의 화에서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7일 처리됐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aT에 따르면 김치의 날(11월 22일)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국내에서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미국 현지에서 제정된 것은 지난해 8월 23일 캘리포니아주, 올해 2월 9일 버지니아주에 이어 뉴욕주가 세 번째다.

결의안은 뉴욕주에서 김치의 인기와 수요 및 수출 증가, 김치의 역사, 건강식품으로서의 우수성과 함께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며 2013년 유네스코가 김치 준비·보존과정인 김장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고 명시하고, 매년 11월 22일을 뉴욕주 김치의 날로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은 뉴욕주 론 킵 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 뉴욕주의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의회는 김치의 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4~5월경 공표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aT는 공표식 날짜에 맞춰 버지니아와 뉴욕에서 김치의 날 소비자 홍보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론 킵 의원은 “결의안 제정을 계기로 김치를 비롯한 보다 많은 한국 식품이 미국 사회에 전파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춘진 사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지니아주에 이어 뉴욕주에서도 김치의 종주국에 대한 한국임을 명확히 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김치의 날이 뉴저지주, 매릴랜드주 등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K-Food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미국 현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미 김치 수출은 2020년 대비 22.5%가 증가한 2.825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10년 전인 2011년 279만 달러와 비교하면 10배 가량 성장했다.

공공형 계절근로 4월부터 시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외 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농촌인력지원 시범사업으로 무주, 임실 등 4개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320명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전북 지역은 무주군 100명, 임실군 40명으로 총 140명이 예정됐다. 이에 따라 1월부터 해당 시·군과 함께 운영 주체, 참여 농가 규모, 농가 부담 이월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절근로자가 사용할 숙박 시설, 격리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법무부에 제출했다.

앞서 실행하던 종전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돼,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연말 제도개선을 단행하고,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전북특구 육성자문단 1차 네트워크 행사 개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조용철, 이하 전북특구본부)는 지난 25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2022년 전북특구 육성자문단 1차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특구 육성자문단은 전북특구와 전북도 발전을 위해, 산·학·연·관 오픈리더들이 참여해 정책 발굴 및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도 4대 주력혁신산업 및 5대 프런티어산업 육성정책과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전략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도 산업육성정책 및 전북연구개발특구 발전을 위해 혁신기간 간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 향후 혁신성장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전북특구 육성자문단은 위원별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 대·중소기업간 연계 등 현장중심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5일 모바일 농사체험 게임 '레알팜'을 개발한 (주)네오게임즈와 국내 육성 품종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관 정보 공유 우리농산물 홍보

농진청-네오게임즈, 국내 육성 품종 유통 활성화 협약 '레알팜' 게임 이용자에게 배송되는 농산물 특화작물로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지난 25일 모바일 농사체험 게임 '레알팜'을 개발한 (주)네오게임즈(대표 박동우)와 국내 육성 품종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사가 개발한 '레알팜'은 가상 세계에서 여러 사람과 교류하며 실제 재배 환경과 비슷한 조건에서 농사를 짓는 모바일 게임으로 2022년 10월에 출시 됐다. 게임 이용자는 작물 재배 숙련도가 높아지면 전용 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개수 이상을 모아 실물 농산물로 교환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국내 육성 품종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관측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외국 품종 농산물을 국내 육성 품종으로 대체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청 및 전국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주요 품종과 작물별 재배 기술, 주요 생산자치 등에 관한 정보를 (주)네오게임즈에 제공하고, 생산단지과 유통업체 간 계약재배 체

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네오게임즈는 '레알팜' 게임 이용자에게 배송되는 농산물을 국내 육성 품종 및 지역 특화 작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현재 네오게임즈가 게임이용자에게 보내는 실물 국내 농산물은 평균 월 1,600건 정도(5,000만원 상당)이다. 여기에 더해 '레알팜'에 국내 육성 품종 농산물을 재배, 수확, 판매까지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네오게임즈 정영원 e-커머스팀장은 “레알팜은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높은 30~40대 여성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레알팜을 통해 우수한 국내 육성 품종을 널리 알리고 판로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농진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우수한 국내 육성 품종 농산물의 인지도도를 높여 소비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민간 관리 미생물, 중복보존 위탁 가능

농진청 농업미생물은행서 보존 서비스... 기간은 최초 5년 이하 희망 기업 등은 '씨앗은행' 누리집 안전중복보존 서비스에서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기업과 연구소가 보유한 산업용, 연구용 미생물 등 활용 가치는 높으나 국가 생물자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유실 위험이 있는 농업, 식품 미생물의 안전 중복보존 서비스를 3월 2일부터 시작한다.

지난 25일 농진청에 따르면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미생물 중 일부는 특허로 등록돼 국가에서 중복 관리하고 있지만 다수의 미생물은 기업 또는 연구소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어 유실될 우려가 있다.

이에 안전 중복보존 서비스는 농진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부처가 참여하는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으로 실시된다.

보존 서비스는 농진청 농업미생물은행(KACC)에서 제공한다. 보존 기간은

최초 5년 이하로, 이어서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보존되는 미생물은 비공개 등록되고, 보존을 신청한 기업이나 연구소 허가 없이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

여기에 맞춰 농업미생물은행은 자동화된 액화질소냉동고를 특수 제작했다. 영하 196°C에서 미생물을 보존할 수 있으며, 권한을 가진 작업자만이 해당 미생물에 접근할 수 있고, 입출고 내용이 모두 기록되는 등 보안 관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또한 초저온냉동고에 미생물을 이종으로 보존한다. 초저온냉동고에는 카드키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관별 보존 미생물에 2개의 잠금장치를 설치해 신청 기관과 농업미생물은행이 함께 했을 때만 해당 미생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중복보존 서비스를 원하는 기

업과 연구소는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 '씨앗은행' 누리집(genebank.rda.go.kr)의 안전중복보존 서비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농업미생물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이어서 농업미생물은행은 신청된 미생물의 중요성과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해 수탁 여부를 검토하고, 수탁이 결정되면 보존 내용, 기간, 조건 등을 기록한 협약을 상호 체결한다.

협약이 체결되면 신청한 기관이 직접 액화질소냉동고와 초저온냉동고의 해당 공간에 각각 미생물을 입고 하고, 농업미생물은행이 비공개로 관리한다.

농진청 농업미생물과 감남정 과장은 “농업미생물은행은 현재 국내 특히 미생물 전체를 중복으로 보존하는 국가특허미생물통합보존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서비스 시작으로 국가 자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미생물도 안전하게 장기 보존 가능하게 돼 소중한 국가 미생물 자원의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